



Focus 2018년 海事단체 정기총회 모음

국제물류협, 제10대 회장에 김병진 회장 연임

한국국제물류협회(회장 김병진)는 2월 2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18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김병진 태경해운항공 대표를 제10대 회장으로 재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7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산서, 정관 개정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특히 이번 총회는 '2020 국제물류협회 세계총회(FIATA)'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현재 단임제로 규정된 회장직을 1회 중임제로 변경하고, 이사회 임원 정족수를 기존 29명에서 최대 38명까지 확대한다는 안건과 함께 22년만에 협회비 인상안이 상정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김병진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진해운 사태와 경기침체로 국내 물류업계는 큰 위기를 맞고 혼돈에 빠졌으나 FIATA 총회 개최로 터닝포인트를 맞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9대에 이어 10대 회장직을 맡게 그는 "FIATA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내 물류업계가 세계 물류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겠다"며 그 외에도 대기업 물류자회사 문제와 해운법 개정을 필두로 주무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업계가 생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회장직 외에도 성낙청 동남익스프레스 대표이사, 황용오 유니트란트 대표이사가 감사직을 연임했으며 부회장 및 이사단은 추후 이사회를 통해 선출된다.

한편 협회는 작년도 FIATA 총회 유치 외에도 △대기업 물류자회사 관련 개정법률안 추진 △해상 LCL화물 검수검량 관련 업무 추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화주·물류기업 동반 해외진출 지원사업 △우수물류기업 인증 업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내 창고·임대업 미등록 관련 업무 추진 △청년취업아카데미 과정 및 재직자 대상교육 실시 등의 사업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청년취업아카



데미 사업은 수료 후 취업률이 90%에 육박해 타 교육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제물류협회는 올해 사업계획으로 △인천항 공동물류센터 추진, 국제물류서비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추진 등을 통한 회원사 지원 △대기업 물류자회사에 관한 사항, 물류정책기본법 개정 추진 등을 통한 제도개선 △국제물류아카데미 등 교육 훈련사업 적극 참여 △FIATA 총회와 국제물류관련 국제회의 참석을 통한 대외협력 강화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3억 17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이에 물류협회 한 회원사는 "각 회원사가 물류업계에 대한 경영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길 희망하며, 이에 대한 예산안도 추후 편성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문종석 나우리해운항공 대표이사가 공로패를, 이정선 부산관공공사 차장, 신수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김정훈 경기평택항만공사 팀장 등이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대륙항공해운 등 총 12개사가 국제물류협회 신규회원으로 가입했다.

△2017년도 신규 가입 회원사(12개)

대륙항공해운(주), 에이엔씨에스씨엠, 케이에이티로지스틱스, 아이엠에이해운항공, 삼성해운, 행복나라(주), 제스트릭스, 현대종합상사(주), 로지세스코리아(주), 플랜비로지스틱, 쇼카고로지스틱, 삼에이치케이티

해운대리점협, ONE코리아 신규가입으로 124개 회원사 구축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회장 이상직)는 이상직 협회회장을 연임키로 하고, 김길수 인치케이프쉬핑코리아 사장을 이사직에서 부회장으로 새롭게 선임했다. 또한 총회 전날 ONE코리아가 협회에 신규로 가입하면서 회원사도 총 124개사로 구성됐다.

해운대리점협회는 2월 2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4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승인했다. 또한 전형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회장과 감사 2인 그리고 협회장 추천을 통한 부회장 3명 이사 14명을 새롭게 구성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이상직 협회장은 "올해는 글로벌 경제 개선에 따라 해운시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운임상승, ONE 합병, KSP 결성 등으로 인한 과당경쟁이 감소하고 있어 해운시황과 대리점 업계에도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한다"고 밝혔다. 향후 협회 방향에 대해 그는 "해운선진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항만요율 인상 억제, 대리점업 등록제도 등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날 협회는 각종회의 개최, 운영·해운1,2·항만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통한 사업실적을 발표했다. 특히 운영위원회 산하 세계·금융 소위원회는 지난 5월 오너와 용선자 간 세금계산서 발행문제에 대해 각 회원사별로 사안이 달라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11월에는 대리점요율(Agency Fee Tariff) 개정과 관련해, 대리점 현지법인은 기존 요율부과 방식인 커미션 제도보다는 이익금에 일정비율을 부과해 요율을 산정하는 마크업 방식을 선호해 대리점요율을 향후 개정하는 경우, 어느 제도가 더 효율적인지 논의한 바 있다.

한편 협회의 올 사업추진 방향도 예년에 비해 큰



변화 없이 회원사 업무지원활동 강화, 제도개선 건의, 항만운영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정기선분과인 해운1 위원회는 각종 법령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운2 위원회는 업체간의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덤핑을 유도한 외국선사를 공개하고 대리점 수수료 요율도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운대리점업 갱신 문제에 대한 개선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제주도 강정항의 항만 부대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크루즈선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를 위해 대리점료, 예·도선 및 각종 항만부대비용 등의 합리적 항만운영 제도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개선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협회는 사업보고 및 예산안의 원만한 통과 이후 새롭게 임원단을 구성했으며, ONE코리아를 포함한 4개사의 신규가입과 회비미납 4개사를 제명처분하며 총 124개 회원사를 꾸리게 됐다.

△2017-18년도 신규 가입 회원사(4개)

인타아시아라인즈코리아(주), (주)올베스, (주)덕양유엘씨, ONE코리아





Focus 2018년 海事단체 정기총회 모음

도선사협회, 제18대 협회장 임상현 도선사 취임

한국도선사협회(회장 임상현)는 2월 21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4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여수항도선사회 임상현 도선사를 제18대 협회장으로 선출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총 3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90% 이상의 투표율을 보였다.

신임 임상현 협회장은 앞으로 3년간 협회 운영을 책임지고 수행하게 된다. 임 회장은 이날 당선 직후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협회 현안 해결과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발로 뛰면서 활동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한국해대 31기)를 졸업한 임상현 회장은 1979년부터 한라해운, STX SM(주)에서 항해사 및



선장으로 근무하고 2016년부터 여수항 도선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협회 임원 선임, 2017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 등을 승인·의결하고 도선사 수급 계획 등을 검토했다.

해양연맹, 제9대 총재에 김현겸 팬스타그룹 회장 취임

대한민국해양연맹(총재 김현겸)의 제9대 총재에 김현겸 팬스타그룹 회장이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연맹은 2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8년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2017년도 결산안 및 감사보고, 2018년도 예산안 및 주요사업계획안, 제9대 총재 선출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대로 승인했다. 김현겸 총재는 “미숙한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하다. 해양연맹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해양연맹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재정확충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지난해 3월부터 총재 권한대행을 맡아오다 7월부터 8대 총재직을 수행해왔다.

연맹 신규 임원진으로는 울산항만공사 고상환 사장,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 에스케이탱커 박성진 대표이사, 인천재능대 박창호 교수, 한국해양교육연구회 신춘희 회장, 이기식 전 해군작전사령관, 선박안전관리공단 이연승 이사장 등 7명이 선출됐다. 연맹은 올해 주요 사업으로 △민·관·군·경 공동업



무 협약 추진 △해양사상 고취 및 국제해양력 심포지엄 개최 △해양연맹 활동강화 △해양관련 교육사업 강화 △대국민 홍보활동 △해양문화 장학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안은 5억 500만원이다.

한편 이날 총회 이후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은 “글로벌 해운강국의 꿈도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되어야 실현된다는 점에서 해양연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해양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글로벌 해운강국의 꿈이 국민들에게 자리잡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선급, “올해 디지털 선급으로 성공적 전환”

한국선급(회장 이정기)은 2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회무보고 및 회원변동에 관한 현황보고에 이어 2017년 결산(안)을 상정(수입 1,222억, 지출 1,212억)하여 최종 승인했다.

한국선급은 지난해 국내외 조선해운업계의 극심한 불황과 정부검사권 개방, 공직유관단체 지정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 대비하여 영업력을 강화하고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신조발주 시장점유율이 전년대비 3.2% 확대되고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경영성과를 거뒀다.

이정기 한국선급 회장은 “올해는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 해사경기가 회복할 수 있는 시그널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면서 “이 시그널을 바탕으로 산업계 전체



에 불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디지털 선급으로의 성공적 전환과 IACS 의장으로서 전 세계 해사안전에 참여하고 한국선급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는데 매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일부 해운조선업계회원의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회원 수는 종전 93명에서 80명으로 정리됐다.

선박관리산업협, 선박관리전문가 양성교육 연 2회 시행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회장 강수일)는 2월 23일 오전 부산 선원센터 4층 대강의실에서 ‘2018년도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과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했다.

협회는 올 한 해 주요사업으로 △선박관리전문가 양성교육 △선박관리산업 활성화 △선원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협회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선박관리전문가 양성교육은 3-6월, 9-11월 등 2차례에 걸쳐 한국선원센터 강의실에서 개최되며 500여명을 대상으로 양성 과정 7개, 심화과정 7개, 기타과정 5개로 나뉘어 진행된다. 또한 선박관리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어학강좌를 개설해 산업 활성화에도 매진한다. 더불어 승선근무에 비역 제도 운영에 대한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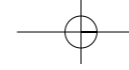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올 한 해 협회의 예산은 9억 1,604만원으로 전년 대비 202만원 가량 높게 책정됐다.

한편 협회는 작년에 2차례의 노사협의회를 개최해 최저주부식비를 올 4월부터 현행 8.0\$에서 8.5\$로 인상하고 내년 4월부터 유급휴가 일수를 현행 7일에서 8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사측에서 적극 노력한다는 결론을 끌어낸 바 있다.





Focus 2018년 海事단체 정기총회 모음

예선업협동조합, 해양선박 김기웅 대표 등 신규이사 선임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이사장 장성호)은 2월 20일 켄싱턴호텔에서 45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8 제 16회 정기총회'를 열고 (합)해양선박 김기웅 대표이사, 보고예선(주) 정재복 대표이사 2명을 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이날 총회에서 조합은 2017년도 결산 및 이익잉여금처분안,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과 임원선출안 총 3가지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협회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선박입출항법 하위법령 개정 지원 △예선사용료 조정 등 운영제도 개선 △예선의 수급계획 연구 용역 △공제사업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 △예선 선원의 인사노무관리 매뉴얼 제작 등을 추진한다.

선박입출항법 하위법령 개정 지원을 위해서는 정제지 여건을 반영한 예선업 등록 제한 등 조합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선사용



료 조정을 조기 시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예선운영협의회 및 실무위원회를 연중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공제사업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올 1분기에 선원공제 시행을 위한 선원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검정업체 간담회 및 권역별 지정병원 계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분기에는 공제사업 자문변호사 풀 구성을 추진하고, 중국과 일본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며 영국 Lloyd's와 보상한도액 5억달러의 재보험 계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한국조선해양기자재인의 날' 개최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이사장 박윤소)은 2월 21일 부산 파라곤호텔에서 제38회 정기총회와 함께 '한국조선해양기자재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7년도 사업보고와 수지결산 및 잉여금 처분(안),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임원 선임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조합은 올해 △국내외 조선해양기자재 전시회 개최 및 운영, 수출 상담회 등을 통한 글로벌 시장 확대 △국제 컨퍼런스 및 세미나, 조선해양 기술인증 및 교육고도화 등을 통한 기술·정보전달 체계화 △국내외 네트워크 연계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열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STX엔진 송영원 팀장 등 5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을 수상했으며, 부산광역시 기간산업과 박성출 팀장 등 3명이 KOMEA 이사장 표창을 수상했다, 해양대학교 LINC+사업단 경갑수 단장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최수정 부산지역본부장은 감사패를 수상했고, 비아이산업·선박무선·성일에스아이엠·오리엔탈정공 4개사는 우수기자재 인정서를 수상했다.

통합물류협, "회원사 권익보호에 기여하는 협회로 거듭나"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박근태)는 2월 2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151개 회원사 중 101개사가 출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결산(안) 및 예산(안)과 올해 사업계획서, 임원 선임에 대한 위임 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합물류협회는 '혁신', '신뢰', '권익보호' 등의 단어를 반복하며 협회의 성장과 발전의지를 다졌다.

박근태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회원사를 위한 협회로 거듭나고자 2018년도 사업방향을 물류산업선진화와 회원사의 권익보호로 정했다"고 밝히면서 "4차산업혁명과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물류기업에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협회도 이러한 기조에 맞춰 회원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백현식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장은 축사에서 "물류산업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택배물량 20억박스 돌파, 전자상거래 확산 등의 생활밀착형 물류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안전한 물류환경 조성 등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물류협회는 △정책제안 등의 회원사 권익보호 활동 △해의 동향, 물류 인재양성 사업 등을 통한 회원사 경쟁력 지원사업 추진 △국제물류산업전 개최, 물류의 날 개최 등의 물류산업 위상제고 활동을 전개하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사업실적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협회는 회원사에 신뢰받는 협회로 거듭나기 위해 올해 사업 추진방향을 '물류산업 선진화와 회원사 권익보호 기여'로 정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간 합리적 정책동반자 역할 수행 △물류의 날 법정기념일 추진으로 물류산업 위상제고 활동 △회원사간 상호발전 및 상생협력 환경 조성 △회원사 경쟁력 강화 위한 지원사업 전개 등의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해기사협회, "IT 개선사업과 회원DB 구축 추진"

한국해기사협회(회장 이권희)가 2월 20일 오후 협회 회의실에서 2018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권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8년도는 회원과 해기사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특히 IT 개선사업과 회원 DB의 구축으로 회원이 찾는 협회로 나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의 3대 전략 목표인 '소통', '대표성', '세력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제64차 정기총회에 부의할 6개의 안이 상정되었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되었다. 또한 정기이사회 개최 전 제64차 정기총회 및



창립기념식의 유공 및 모범해기사, 해수부장관 및 유관기관단체장 표창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적 심사 위원회도 열렸다. 한편 한국해기사협회의 제64차 정기총회는 오는 3월 28일에 개최된다.





Focus 2018년 海事단체 정기총회 모음

서울해사중재협, 협회장에 정병석 변호사 선임

서울해사중재협회(회장 정병석)가 2월 28일 오후 한국선주협회 10층 대회의실에서 해사중재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임의 해사중재 지원기관으로서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협회는 창립을 위한 그간의 경과를 보고한 후, 정관 심의와 임원선출을 진행했으며, 정병석 김&장 변호사가 신임 협회장직을, 김창현 (주)한리해상 수석 손해사정인이 감사직을 맡게 됐다. 그 밖의 부회장 및 이사직은 협회 내부회의를 거쳐 선정될 전망이다.

또한 서울해사중재협회는 이날 참석한 관계자 및 회원에게 향후 협회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중재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6인의 중재인도 발표했다. 이날 소개된 6인은 협회장과 감사인 정병석 변호



사와 김창현 손해사정인, 최종현 법무법인 세경 변호사, 김인현 고려대 교수, 손점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및 조정위원, 이석행 시마스타 대표이사 등 총 6인이다. 협회는 중재의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해사관련 전문인을 중재인으로 적극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한해총, 대국회 및 정부협력 강화·해양산업 동반발전 추진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회장 이운재)가 2월 28일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2018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대국회 및 정부협력을 강화하고 해양산업 동반발전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는 한해총 이운재 회장,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 해수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 등을 비롯한 회원단체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해양 한 가족 정신”이 중요하다”면서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글로벌 해양강국의 목표를 이뤄나가자. 해수부가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도선사협회, 예선업협동조합, 해기사협회 등 총 15개 회원단체의 대표 변경에 따라 한해총 부회장으로는 도선사협회 임상현 회장과 예선업협동조합 장성호 이사장,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이 승계됐고, 이사로는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연승 이사장이 승계됐다.



선원단체간 통합으로 기존 '전국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은 퇴회했으며,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운재 회장, 손관수 수석부회장 등 임기만료된 임원(회장단 10인, 이사 5인, 감사 2인)들은 모두 유임됐다. 신규회원으로는 2017년 12월 '한국해양교육연구회'가 가입했다.

해양소년단연맹, 제18대 총재에 정호섭 전 해군참모총장 취임

한국해양소년단연맹(회장 정호섭)의 제18대 총재에 정호섭 전 해군참모총장(충남대 석좌교수)이 선출됐다.

연맹은 2월 22일 한국선주협회 10층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정호섭 총재를 신임 총재로 선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연맹 임원 및 초청내빈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임원 재임 및 퇴임안, 신임 총재 선출안,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 개정안, 신임 임원선임의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정호섭 신임총재는 인사말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바다를 향한 꿈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미래의 주역에게 줄 수 있는 귀중한 선물”임을 피력하며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더욱 발전된 연맹을 만들어 나가자”는 당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5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백석현 전임 총재(SK해운 고문)는 “우리



의 미래이며 희망인 청소년 육성을 목표로 해양소년단연맹과 5년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행복했다. 제가 이 일을 무사히 수행하도록 많은 지원을 해준 고문 및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임명된 신임 임원은 총 4명으로, 민흥기 한국해양구조협회 이사장이 고문, 선광 심충식 대표이사과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연승 이사장이 부총재, 한국항만물류협회 김석구 상근부회장이 이사로 각각 선임됐다. 연맹의 올해 예산안은 약 15억 6,000만원이다.

해운중개업협회, 염정호 회장 4회 연임 “협회 활성화 최선”

한국해운중개업협회(회장 염정호)의 차기 회장으로 현 염정호 회장이 연임됐다. 이로써 염 회장은 2007년 첫 회장직을 맡은 이후 4번 연임됐다.

해운중개업협회는 2월 27일 한국선주협회 10층 대회의실에서 제28차 정기총회를 열고 염정호 회장(일도해운 대표이사) 연임을 비롯한 임원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2017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의결, 처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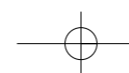
염 회장은 “지난 2007년 이후 협회 회장직을 수행한지 10여년의 세월이 지났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다시 회장직을 맡게 되어 영광스럽고 죄송스럽고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수년간 계속된 해운시장 침체의 악순환으로 현재 협회는 존폐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정부당국과 긴밀한 협조 하에 중개업 발전



과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업체간의 공조와 협력을 당부했다.

해운중개업협회는 신규 회원 유치의 어려움과 일부 회원의 폐업과 탈퇴, 회비 미납액 증가 등으로 지난해 8월부터 운영비 적자가 발생해왔다. 2017년말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중개업체는 950여개사이나 협회 가입사는 60여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Focus 2018년 海事단체 정기총회 모음

항만물류협,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에 적극 협조”

한국항만물류협회(회장 손관수)는 2월 23일 서울 그랜드엠베서더 호텔에서 '2018년도 제1차 이사회 및 제4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비상임 임원 선임(안), 2017년도 수지결산 보고,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제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날 총회는 손관수 한국항만물류협회장,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류종영 항만운영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사 76개 업체 중 65개 사가 출석했다.

손관수 항만물류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협회가 선진 항만물류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코자 한다”고 밝히면서 “특히 국가 경제 안보의 비상사태 발생 시 항만물류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 중인 국가필수해운제도 시행에 적극 협조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엄기두 국장도 축사에서 현재 국회 법안에 상정 중인 국가필수해운제도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국가필수해운제도 법안이 올 상반기에 통과되면, 하반기에 항만물류업계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연내에 필수항만운영사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며 “항만별 TOC 기준으로 약 30개의 운영사를 선정하게 되며, 부두임대료는 전체적으로 20억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작년에 이어 항만하역장비 현대화 자금 지



원 및 사업대상 항만 선정, 항만하역요금 조정 등의 업무를 진행하며, 이와 함께 △TOC 임대시설 유지·보수 관리 개선 △항만 야드트랙터(Y/T) LNG 전환 사업 확대 △전국 컨터미널 운영사 협의회 △국가필수해운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 등을 새롭게 진행한다. 특히 해수부는 올 한 해 Y/T LNG 전환사업의 지원대상 장비를 100대로 확대하였으며, 협회는 동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수부 및 항만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 밖에도 협회는 회원사 권익신장 8건, 항만운영 관련 9건, 항만 노무관련 4건, 안전 및 교육관련 2건, 정보자료 발간 및 홍보 5건, 기금관리 업무 등 총 29건의 사업을 진행한다.

한편 협회는 여수광양협회장에 유환기 CJ대한통운 호남사업본부장, 마산협회장에 조정근 (주)엘에스엘 대표이사, 동해협회장에 탁복만 금강물류(주) 대표이사, 제주협회장에 현진석 (주)제주항공해운화물 대표이사가 각각 선임됐다.

파렛트컨협, 제22기 정기총회 개최

사단법인 한국파렛트컨테이너 협회는 2월 27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22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한편 협회는 서병륜 현 협회장(로지스올 회장)을 연임기로 결정했다. 임기는 3년이다.

